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조직 세밀도 및 감촉 특성에 대한 임상 연구

이수현 · 주종천¹ · 윤투식 ·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1:원광대학교 사상체질과

Clinical Study on the Relations of the Refinement and the Tactile of Back Skin of the Hand to Sasang Constitutions depending on sex and age

Su Heon Lee, Jong Cheon Joo¹, Yoo Sik Yoon, Jong Yeol Kim*

Department of Medical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W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refinement and tactile of skin depending on sex and age, using 1079 clinical data registered to SCIB(Sasang constitution Information Bank),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e thickness of skin has big discrimination ability in classification of Taeumin and Soyangin, especially in women and in ages 21 or more. The stiffness of skin also has big discrimination ability in classification of Taeumin and Soeumin, especially in Taeumin women and Soeumin man and in ages 21-60. The differences stated above have been proved to be meaningful enough by Chi-square test.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skin characteristics, back skin of hand, relative discrimination ability, refinement, tactile

서론

저자는 사상체질별 피부특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연구’¹⁾를 통해 피부의 “후박”과 “견연”의 정도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체질별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이어, 익산원광한의학원의 임상데이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사상체질정보은행에 등록된 자료들의 손등 피부 특성 관련 기재 내용 중 “조세”, “미부”의 피부요소에 대해 체질별 통계적 분석뿐만 아니라, 각 체질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더 세분화된 통계적 분석을 행하는 임상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6년 6월부터 2004년 5월 사이 8년간 익산원광한의학원에 내원한 초진환자 중 주증이 호전되어 체질이 판별되었다고 생각되는 환자 그룹 1079명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에 등록하고 이들의 피부진단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표본 그룹의 성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피부 특성에 관한 분석 방법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연구’²⁾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부요소의 변수값 중 “조세”, “미부”의 피부요소와 이를 결합한 “세미부”의 피부요소에 대하여 체질

* 교신저자 : 김종열,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 E-mail : ssmmed@kiom.re.kr, · Tel : 042-868-9489

· 접수 : 2005/01/20 · 수정 : 2005/02/18 · 채택 : 2005/03/22

1)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연구. 2004.

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연구. 2004.

에 따른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성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by age and sex.

constitutio nN,%	Age(years)								F ^e	M ^f	total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				
SE ^a	N	12	11	14	46	66	47	44	169	71	240
	%	16.0	10.8	12.3	24.1	27.5	30.7	21.6	25.4	17.2	22.2
SY ^b	N	24	25	27	59	72	30	49	205	81	286
	%	32.0	24.5	23.7	30.9	30.0	19.6	24.0	30.8	19.6	26.5
TE ^c	N	39	66	73	86	102	75	109	289	261	550
	%	52.0	64.7	64.0	45.0	42.5	49.0	53.4	43.5	63.0	51.0
TY ^d	N					1	2	2	1		3
	%					0.7	1.0	0.3	0.2		0.3
Total	N	75	102	114	191	240	153	204	665	414	1079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 SE : Soeumin; b. SY : Soyangin ; c. TE : Taeumin ; d. TY : Taeyangin ; e. F : female ; f. M : Male

2) 상대변별력(relative discrimination ability)과 기재율(recording ratio)

김 등의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³⁾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 연구'⁴⁾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대략 변별력 0.5 이상, 기재율 10% 이상이면 피부를 통한 체질진단의 유효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았다.

자료 및 분석

1. 피부가 "조"하거나 "세"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

Table 2. Roughness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Roughness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Refined	Count	48	67	71	1	187
	row %	25.7	35.8	38.0	0.5	100.0
	RR	8.7	27.9	24.8	33.3	17.3
	RDA	-0.5	0.6	0.4	0.9	
Rough	Count	256	42	48	1	347
	row %	73.8	12.1	13.8	0.3	100.0
	RR	46.5	17.5	16.8	33.3	32.2
	RDA	0.4	-0.5	-0.5	0.0	
not clear	Count	2	1	2		5
	row %	40.0	20.0	40.0		100.0
	RR	0.4	0.4	0.7		0.5
	RDA	-0.2	-0.1	0.5		
none	Count	244	130	165	1	540
	row %	45.2	24.1	30.6	0.2	100.0
	RR	44.4	54.2	57.7	33.3	50.0
	RDA	-0.1	0.1	0.2	-0.3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χ ² = 129.538		df = 9	p = 0.000	
		χ ² _{0.05(9)} = 16.919				

3) 김종열 · 김홍기,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학회지, 15(2) : 64-71, 2003.

4)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연구, 2001.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2). 이 때 피부가 "조"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변별력이 0.4, 기재율이 46.5%로 다른 체질에 비해 크게 높았지만, 피부가 "세"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 소양인 체질 모두가 변별력이 양수의 값으로 산출되었고, 그 크기가 각각 0.6, 0.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기재율도 두 체질이 27.9%, 24.8%로 서로 유사하였다. 따라서, 피부가 "조"한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세"한 경우에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여, 소음인 또는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

Table 3. Roughness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with Sex.

Roughness		TE		SE		SY		TY		Total	
		F	M	F	M	F	M	F	M	F	M
Refined	Count	27	21	51	16	57	14	1		136	51
	row%	19.9	41.2	37.5	31.4	41.9	27.5	0.7		100.0	100.0
	RR	9.3	8.0	30.2	22.5	27.8	17.3	50.0		20.5	12.3
	RDA	-0.5	-0.3	0.5	0.8	0.4	0.4	1.4	-1.0		
Rough	Count	108	148	27	15	26	22		1	161	186
	row%	67.1	79.6	16.8	8.1	16.1	11.8		0.5	100.0	100.0
	RR	37.4	56.7	16.0	21.1	12.7	27.2		100.0	24.2	44.9
	RDA	0.5	0.3	-0.3	-0.5	-0.5	-0.4		-1.0	1.2	
not clear	Count		2	1		2				3	2
	row%		100.0	33.3		66.7				100.0	100.0
	RR		0.8	0.6		1.0				0.5	0.5
	RDA		-1.0	0.6		0.3		-1.0	1.2	-1.0	-1.0
none	Count	154	90	90	40	120	45	1		365	175
	row%	42.2	51.4	24.7	22.9	32.9	25.7	0.3		100.0	100.0
	RR	53.3	34.5	53.3	56.3	58.5	55.6	50.0		54.9	42.3
	RDA	0.0	-0.2	0.0	0.3	0.1	0.3	-0.1		-1.0	
Total	Count	289	261	169	71	205	81	2	1	665	414
	row%	43.5	63.0	25.4	17.1	30.8	19.6	0.3	0.2	100.0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 Signif.		f		χ ² = 72.031		p = 0.000				χ ² _{0.05(9)} = 16.919	
		m		χ ² = 47.050		p = 0.000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3). 피부가 "조"할 때, 태음인 남자의 경우 변별력 0.3, 기재율 56.7%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도수에서의 변별력 0.4, 기재율 46.5%(Table 2)보다 기재율은 높았으나 변별력이 낮았고, 여자의 경우 변별력 0.5, 기재율 37.4%로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보다 기재율은 낮았지만 변별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체질 구분에 있어서 기재율에 비해 변별력이 더 큰 비중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피부가 세밀한 여성에게 있어서 피부가 "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태음인으로 진단할 확률이 같은 경우의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피부가 "세"할 때는, 소음인(여:변별력0.5, 기재율 30.2%; 남:0.8, 22.5%)과 소양인(여:0.4, 27.8%; 남:0.4, 17.3%)의 경우에 남녀 모두 유효성 있는 수치를 나타냈으며, 전체 도수의 변별력(소음인 0.6, 소양인 0.4)이나 기재

울(소음인 27.9%, 소양인 24.8%)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음인 남자의 변별력이 전체도수의 변별력에 비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고, 소양인 남자의 기재율은 오히려 전체 도수에서의 기재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가 “세”한 경우, 여성에 있어서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남성에 있어서는 소음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와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변별력 0.4로 전체 도수에서의 변별력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도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부 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피부가 “세”할 때, 소음인 못지않게 소양인에서도 변별력과 기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청소년기:0.4, 6.1% ; 청장년기:0.4, 33.7% ; 중년기:0.4, 30.4% ; 노년기:0.7, 16.3% ; 전체:0.4, 24.8%) 특히 노년기의 변별력이 높

Table 4. Roughness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with Age.

Roughness		TE				SE				SY			TY			Total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Refined	Count	2	21	19	6	3	23	35	6	3	29	31	8		1			8	73	86	20	
	row%	25.0	28.8	22.1	30.0	37.5	31.5	40.7	30.0	37.5	39.7	36.0	40.0		1.2			100.0	100.0	100.0	100.0	
	RR	1.9	13.2	10.7	5.5	13.0	38.3	31.0	13.6	6.1	33.7	30.4	16.3		100.0			4.5	23.9	21.9	9.8	
	RDA	-0.6	-0.4	-0.5	-0.4	1.9	0.6	0.4	0.4	0.4	0.4	0.4	0.7		3.6							
Rough	Count	43	78	103	32		13	24	5	10	13	20	5			1	53	104	147	43		
	row%	81.1	75.0	70.1	74.4		12.5	16.3	11.6	18.9	12.5	13.6	11.6			2.3	100.0	100.0	100.0	100.0		
	RR	41.0	49.1	58.2	29.4		21.7	21.2	11.4	20.4	15.1	19.6	10.2			50.0	29.9	34.1	37.4	21.1		
	RDA	0.4	0.4	0.6	0.4		-0.4	-0.4	-0.5	-0.3	-0.6	-0.5	-0.5			1.4						
not clear	Count		1		1			1			1	1							2	2	1	
	row%		50.0		10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RR		0.6		0.9			0.9			1.2	1.0							0.7	0.5	0.5	
	RDA		0.0		0.9			0.7			0.8	0.9										
none	Count	60	59	55	70	20	24	53	33	36	43	50	36			1	116	126	158	140		
	row%	51.7	46.8	34.8	50.0	17.2	19.0	33.5	23.6	31.0	34.1	31.6	25.7			0.7	100.0	100.0	100.0	100.0		
	RR	57.1	37.1	31.1	64.2	87.0	40.0	46.9	75.0	73.5	50.0	49.0	73.5			50.0	65.5	41.3	40.2	68.6		
	RDA	-0.1	-0.1	-0.2	-0.1	0.3	0.0	0.2	0.1	0.1	0.2	0.2	0.1			-0.3						
Total	Count	105	159	177	109	23	80	113	44	49	86	102	49		1	2	177	305	393	204		
	row%	59.3	52.1	45.0	53.4	13.0	19.7	28.8	21.6	27.7	28.2	26.0	24.0		0.3	1.0	100.0	100.0	100.0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 Signif.			-20																		$\chi^2 = 21.398$	
			21-40																			$\chi^2 = 41.533$
			41-60																			$\chi^2 = 66.808$
			61-																			$\chi^2 = 15.803$
																					$p = 0.000$	
																					$p = 0.000$	
																					$p = 0.000$	
																					$p = 0.071$	
																					$\chi^2_{(9)} = 16.919$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피부가 “조”할 때, 태음인 체질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변별력이 양수로 산출되어, 음수로 산출된 다른 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별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중년층(변별력 0.6, 기재율 58.2%)의 경우 나이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도수(변별력 0.4, 기재율 46.5%, Table 2)보다 변별력이나 기재율이 모두 높았다. 체질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중년층에서 피부가 “조”한 경향이 많아지는데, 이는 30-40대의 경제활동이 많은 시기를 거친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피부가 거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피부가 “조”한 경우에도 후박도 및 견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서 중년기까지는 변별력과 기재율이 모두 서서히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도 역시 피부 노화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피부가 “세”할 때, 모든 연령층에 걸쳐 소음인 체질의 변별력과 기재율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부터 청장년기까지는 소음인 체질의 변별력이 1.9, 0.6으로 전체 도수에서의 변별력 0.6(Table 2)보다 크게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중년

게 나타났다. 다른 체질에서는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그 피부 특성이 점차로 소실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노년기의 데이터 수가 풍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피부가 “세”한 노년기 소양인의 변별력이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피부가 “조”하면 태음인으로, 피부가 “세”하면 소음인 또는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중년층에서 피부가 “조”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과, 피부가 “세”한 사람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는 소음인의 비율이 보다 높고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점차로 소양인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5). 이 때 피부가 “미”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 체질의 변별력이 1.4, 기재율이 71.35%로 변별력이 음수로 산출된 다른 체질에 비해 크게 높았고, 피부가 “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소음인 체질의 변별력이 2.5, 기재율이 60.0%로 역시 변별력이 음수로 산출된 다른 체질에 비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부가 “미”한 경우에는 소양인으로,

“부”한 경우에는 소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피부의 특성 구분에 있어서 “미부”한 정도가 다른 피부 요소에 비해 구분이 모호한 경우(not clear)의 도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부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다른 피부 요소를 구별해 내는 것에 비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단기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미부도의 측정은 다른 체질에 비해 더욱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Touch-feeling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Touch Feeling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Slippery	Count	98	15	204	1	318
	row %	30.8	4.7	64.2	0.3	100.0
	RR	17.8	6.3	71.3	33.3	29.5
	RDA	-0.4	-0.8	1.4	0.1	
Feeble	Count	33	144	9		186
	row %	17.7	77.4	4.8		100.0
	RR	6.0	60.0	3.1		17.2
	RDA	-0.7	2.5	-0.8		
not clear	Count	3	17	10		30
	row %	10.0	56.7	33.3		100.0
	RR	0.5	7.1	3.5		2.8
	RDA	-0.8	1.5	0.3		
none	Count	416	64	63	2	545
	row %	76.3	11.7	11.6	0.4	100.0
	RR	75.6	26.7	22.0	66.7	50.5
	RDA	0.5	-0.5	-0.6	0.3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 = 735.954$		df=9	p=0.000	
		$\chi^2_{3.26}(9) = 16.919$				

Table 6. Touch-feeling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with Sex.

Touch Feeling		TE		SE		SY		TY		Total	
		F	M	F	M	F	M	F	M	F	M
Slippery	Count	59	39	13	2	155	49	1		228	90
	row%	25.9	43.3	5.7	2.2	68.0	54.4	0.4		100.0	100.0
	RR	20.4	14.9	7.7	2.8	75.6	60.5	50.0		34.3	21.7
	RDA	-0.4	-0.3	-0.8	-0.9	1.2	1.8	0.5			
Feeble	Count	20	13	102	42	4	5			126	60
	row%	15.9	21.7	81.0	70.0	3.2	8.3			100.0	100.0
	RR	6.9	5.0	60.4	59.2	2.0	6.2			18.9	14.5
	RDA	-0.6	-0.7	2.2	3.1	0.9	-0.6				
not clear	Count	3		12	5	7	3			22	8
	row%	13.6		54.5	62.5	31.8	37.5			100.0	100.0
	RR	1.0		7.1	7.0	3.4	3.7			3.3	1.9
	RDA	-0.7		1.1	2.6	0.0	0.9				
none	Count	207	209	42	22	39	24	1	1	289	256
	row%	71.6	81.6	14.5	8.6	13.5	9.4	0.3	0.4	100.0	100.0
	RR	71.6	80.1	24.9	31.0	19.0	29.6	50.0	100.0	43.5	61.8
	RDA	0.6	0.3	-0.4	-0.5	-0.6	-0.5	0.2	0.6		
Total	Count	289	261	169	71	205	81	2	1	665	414
	row%	43.5	63.0	25.4	17.1	30.8	19.6	0.3	0.2	100.0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 Signif.		i	$\chi^2 = 466.283$		p=0.000		$\chi^2_{3.26}(9) = 16.919$				
		m	$\chi^2 = 246.214$		p=0.000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본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 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6). 피부가 “미”할 때, 소양인 체질에서 남녀 모두 유효성 있는 수치가 산출되었는데, 남자의 경우 변별력 1.8, 기재율 60.5%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도수에서의 변별력 1.4, 기재율 71.3%(Table 5)보다 기재율은 낮았으나 변별력이 높았고, 여자의 경우 변별력 1.2, 기재율 75.6%로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보다 기재

Table 7. Touch-feeling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with Age.

Touch Feeling		TE				SE				SY				TY				Total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Slippery	Count	7	35	40	16	1	7	4	3	18	70	78	38					1	26	112	122	58	
	row%	26.9	31.3	32.8	27.6	3.8	6.3	3.3	5.2	69.2	62.5	63.9	65.5					1.7	100.0	100.0	100.0	100.0	
	RR	6.7	22.0	22.6	14.7	4.3	11.7	3.5	6.8	36.7	81.4	76.5	77.6					50.0	14.7	36.7	31.0	28.4	
	RDA	-0.5	-0.4	-0.3	-0.5	-0.7	-0.7	-0.9	-0.8	1.5	1.2	1.5	1.7					0.8					
Feeble	Count	1	10	9	13	6	32	81	25	3	1	4	1					10	43	94	94	39	
	row%	10.0	23.3	9.6	33.3	60.0	74.4	86.2	64.1	30.0	2.3	4.3	2.6					100.0	100.0	100.0	100.0	100.0	
	RR	1.0	6.3	5.1	11.9	26.1	53.3	71.7	56.8	6.1	1.2	3.9	2.0					5.6	14.1	23.9	19.1	19.1	
	RDA	-0.8	-0.6	-0.8	-0.4	3.6	2.8	2.0	2.0	0.1	-0.9	-0.8	-0.9										
not clear	Count		1	2		1	3	6	7		3	4	3						1	7	12	10	
	row%		14.3	16.7		100.0	42.9	50.0	70.0		42.9	33.3	30.0						100.0	100.0	100.0	100.0	
	RR		0.6	1.1		4.3	5.0	5.3	15.9		3.5	3.9	6.1						0.6	2.3	3.1	4.9	
	RDA		-0.7	-0.6		6.7	1.2	0.7	2.2		0.5	0.3	0.2										
none	Count	97	113	126	80	15	18	22	9	28	12	16	7					1	1	140	143	165	97
	row%	69.3	79.0	76.4	82.5	10.7	12.6	13.3	9.3	20.0	8.4	9.7	7.2					0.6	1.0	100.0	100.0	100.0	100.0
	RR	92.4	71.1	71.2	73.4	65.2	30.0	19.5	20.5	57.1	14.0	15.7	14.3					100.0	50.0	79.1	46.9	42.0	47.5
	RDA	0.2	0.5	0.7	0.5	-0.2	-0.4	-0.5	-0.6	-0.3	-0.7	-0.6	-0.7					1.4	0.1				
Total	Count	105	159	177	109	23	60	113	44	49	86	102	49					1	2	177	305	393	204
	row%	59.3	52.1	45.0	53.4	13.0	19.7	28.8	21.6	27.7	28.2	26.0	24.0					0.3	1.0	100.0	100.0	100.0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 Signif.		-20				$\chi^2 = 56.195$				p=0.000				$\chi^2_{3.26}(9) = 16.919$									
		21-40				$\chi^2 = 196.707$				p=0.000													
		41-60				$\chi^2 = 322.544$				p=0.000													
		61-				$\chi^2 = 149.883$				p=0.000													

율은 높았지만 변별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부가 덜 매끄러운 남성의 피부가 “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양인일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피부가 “부”할 때는, 소음인 체질에서 남녀 모두 유효성 있는 수치가 산출되었는데, 남자의 경우 변별력 3.1, 기재율 59.2%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도수에서의 변별력 2.5, 기재율 60.0%(Table5)에 비해 기재율은 유사하였으나 변별력이 크게 높았고, 여자의 경우 변별력 2.2, 기재율 60.4%로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와 기재율은 유사하였으나 변별력은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앞의 “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피부가 역센 남성의 피부가 “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음인일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미” 혹은 “부”한 피부특성은 여성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성에서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에 소양인 또는 소음인일 확률이 여성에서의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더 높았다.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7). 피부가 “미”할 때, 전 연령대에 걸쳐 소양인의 변별력과 기재율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년층(변별력:1.5, 기재율:76.5%)과 노년층(1.7, 77.6%)에서는 변별력과 기재율 모두가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1.4, 71.3%, Table 5)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층에서는 변별력(1.5)이 청장년층에서는 기재율(81.4%)이 전체 도수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의 피부가 “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가 “미”한 경우에서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소양인의 체질 판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부가 “부”할 때, 전 연령대(청소년기:3.6, 26.1% ; 청장년기:2.8, 53.3% ; 중년기:2.0, 71.7% ; 노년기:2.0, 56.8%)에 걸쳐 소음인의 변별력과 기재율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와 청장년기에서는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변별력:2.5, 기재율60.0%, Table 5)보다 변별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부가 “부”한 경우에는, 청소년기에서 중년기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다시 감소했던 앞에서의 피부가 “조”한 경우 (Table 4)와는 약간 다르게, 전 연령대를 거쳐 변별력이 서서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높은 연령층 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피부가 “부”하게 판별될 경우 소음인으로 판단되는 확률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피부가 “미”하면 소양인으로, 피부가 “부”하면 소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피부가 “부”하게 나타날 경우 소음인 체질일 확률이 높고, 고령층에서 피부가 “미”하게 나타날 경우 소양인 체질일 확률이 높았다.

3. 피부가 “세미”하거나 “세부”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

앞에서 피부가 “세”한 경우,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소음인과 소양인을 구분하기 위해, 피부가 “세”한 경우에, 소양인과 소음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피부의 “미”하거나 “부”한 정도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체질

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Table 8. Refined & Smoothness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Refined & Touch Feeling		Constitution				Total
		TE	SE	SY	LY	
none & lippery	Count	79	13	151	1	244
	row %	32.4	5.3	61.9	0.4	100.0
	RR	14.4	5.4	52.8	33.3	22.6
	RDA	-0.4	-0.8	1.3	0.5	
none & Feeble	Count	31	93	9		133
	row %	23.3	69.9	6.8		100.0
	RR	5.6	38.8	3.1		12.3
	RDA	-0.5	2.1	-0.7		
none & not clear	Count	2	16	8		26
	row %	7.7	61.5	30.8		100.0
	RR	0.4	6.7	2.8		2.4
	RDA	-0.8	-1.8	0.2		
Refined & none	Count	28	14	18	1	61
	row %	45.9	23.0	29.5	1.6	100.0
	RR	5.1	5.8	6.3	33.3	5.7
	RDA	-0.1	0.0	0.1	4.9	
Refined & Slippery	Count	19	2	53		74
	row %	25.7	2.7	71.6		100.0
	RR	3.5	0.8	18.5		6.9
	RDA	-0.5	-0.9	1.7		
Refined & Feeble	Count	2	51			53
	row %	3.8	96.2			100.0
	RR	0.4	21.3			4.9
	RDA	-0.9	3.3			
Refined & not clear	Count	1	1	2		4
	row %	25.0	25.0	50.0		100.0
	RR	0.2	0.4	0.7		0.4
	RDA	-0.5	0.1	0.9		
none	Count	388	50	45	1	484
	row %	80.2	10.3	9.3	0.2	100.0
	RR	70.5	20.8	15.7	33.3	44.9
	RDA	0.6	-0.5	-0.6	-0.3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 = 785.754$		df=21	p=0.000	
		$\chi^2_{adj}(21) = 32.671$				

그 결과,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8). 이 때 피부가 “세”하지는 않고 단지 “미”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의 변별력이 1.3, 기재율이 52.8%로 변별력이 음수로 산출된 다른 체질에 비해 크게 높았고, 피부가 “세”하지는 않고 단지 “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소음인의 변별력이 2.1, 기재율이 38.8%로 역시 변별력이 음수로 산출된 다른 체질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런데 피부가 “세”하면서 동시에 “미”하거나, “세”하면서 동시에 “부”한 경우를 보면, “세미”한 경우는 소양인이 변별력 1.7, 기재율 18.5%로 단지 “미”한 경우보다 기재율은 낮았지만 변별력은 크게 높았고, “세부”한 경우에도 소음인이 변별력 3.3, 기재율 21.3%로 단지 “부”한 경우보다 기재율은 낮았지만 변별력이 크게 높았다. 특히 “세부”의 경우, 피부가 “세부”한 것으로 판별된 5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51명 모두가 소음인

일 정도로 체질 판별의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피부 분석에 있어서 피부가 “미”한 것으로 판별되는 것보다 “세”와 “미”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별되는 것이 더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기재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변별력으로 체질의 판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부가 “세미”할 때 소양인의 변별력이 단지 “미”할 때보다 더욱 증가하며, 이는 피부가 “세부”할 때 소음인을 판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앞에서 피부의 미부한 정도만으로 소양인과 소음인을 구별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변별력 값이다(“미”, 소양인:1.4 ; “부”, 소음인:2.5, Table 5).

따라서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경우를 구분할 때, 여기에 피부가 “조”하거나 “세”한 정도를 함께 구분 기준에 포함하게 되면 “세”와 “미”, “부”를 통하여 소음인과 소양인을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Table 9. Refined & Smoothness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with Sex.

	Refined & Touch Feeling	TE		SE		SY		TY		Total	
		F	M	F	M	F	M	F	M	F	M
none & Slippery	Count	49	30	11	2	110	41	1		171	73
	row%	28.7	41.1	6.4	2.7	64.3	56.2	0.6		100.0	100.0
	RR	17.0	11.5	6.5	2.8	53.7	50.6	50.0		25.7	17.6
	RDA	-0.3	-0.3	-0.7	-0.8	1.1	1.9	0.9			
none & Feeble	Count	20	11	63	30	4	5			87	46
	row%	23.0	23.9	72.4	65.2	4.6	10.9			100.0	100.0
	RR	6.9	4.2	37.3	42.3	2.0	6.2			13.1	11.1
	RDA	-0.5	-0.6	1.8	2.8	-0.9	-0.4				
none & not clear	Count	2		12	4	5	3			19	7
	row%	10.5		63.2	57.1	26.3	42.9			100.0	100.0
	RR	0.7		7.1	5.6	2.4	3.7			2.9	1.7
	RDA	-0.8		1.5	2.3	-0.1	1.2				
Refined & none	Count	16	12	11	3	12	6	1		40	21
	row%	40.0	57.1	27.5	14.3	30.0	28.6	2.5		100.0	100.0
	RR	5.5	4.6	6.5	4.2	5.9	7.4	50.0		6.0	5.1
	RDA	-0.1	-0.1	0.1	-0.2	0.0	0.5	7.3			
Refined & Slippery	Count	10	9	2		45	8			57	17
	row%	17.5	52.9	3.5		78.9	47.1			100.0	100.0
	RR	3.5	3.4	1.2		22.0	9.9			8.6	4.1
	RDA	-0.6	-0.2	-0.9		1.6	1.4				
Refined & Feeble	Count		2	39	12					39	14
	row%		14.3	100.0	85.7					100.0	100.0
	RR		0.8	23.1	16.9					5.9	3.4
	RDA		-0.8	2.9	4.0						
Refined & not clear	Count	1			1	2				3	1
	row%	33.3			100.0	66.7				100.0	100.0
	RR	0.3			1.4	1.0				0.5	0.2
	RDA	-0.2			4.8	1.2					
none	Count	191	197	31	19	27	18		1	249	235
	row%	76.7	83.8	12.4	8.1	10.8	7.7		0.4	100.0	100.0
	RR	66.1	75.5	18.3	26.8	13.2	22.2		100.0	37.4	56.8
	RDA	0.8	0.3	-0.5	-0.5	-0.6	-0.6		0.8		
Total	Count	289	261	169	71	205	81	2	1	665	414
	row%	43.5	63.0	25.4	17.1	30.8	19.6	0.3	0.2	100.0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 Signif.	f		$\chi^2=513.381$		$p=0.000$				$\chi^2_{(05)(21)}=32.671$	
	m		$\chi^2=259.422$		$p=0.000$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체질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9).

피부가 단지 “미”할 때, 소양인에서 남녀 모두 유효성 있는 수치가 산출되었는데, 여자의 경우 변별력 1.1, 기재율 53.7%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도수에서의 변별력 1.3, 기재율 52.8%(Table 8)보다 기재율은 유사하지만 변별력이 낮았고, 남자의 경우 변별력 1.9, 기재율 50.6%로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보다 기재율이 낮았지만 변별력은 크게 높았다. 이는 피부가 단지 “부”할 때도 동일하였는데, 소음인에서 여자(1.8)에 비해 남자의 변별력 (2.8)이 전체 도수에서의 경우보다(2.1, Table 8) 크게 높았다. 그런데 피부가 “세부”한 경우의 변별력은 남녀 모두에서 남 4.0, 여 2.9로 단지 “부”한 경우(남 2.8, 여 1.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미”한 경우에는 여자는 변별력이 증가(1.1→1.6)한 반면, 남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1.9→1.4). 이는 피부가 “세”하면서 동시에 “미”한 남자의 데이터수가 너무 적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녀 모두 피부가 “미”한 경우에는 소양인으로 “부”한 경우에는 소음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피부가 “세”한 경우의 변수를 추가한다면 체질 진단의 확률이 더 높아지며, 이러한 확률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세미”하거나 “세부”한 사람의 데이터를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체질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χ^2 값이 유의수준($p=0.05$)의 χ^2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10). 피부가 단지 “미”할 때, 전 연령대에 걸쳐 소양인의 변별력과 기재율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세미”한 경우의 변별력(청소년기:1.4, 청장년기:1.5, 중년기:1.7, 노년기:2.3)이 단지 “미”한 경우의 변별력(청소년기:1.5, 청장년기:1.1, 중년기:1.4, 노년기:1.7)에 비해 청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 높아졌다. 또한 “세미”한 경우의 변별력은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함께 높아졌는데, 이는 피부의 노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소양인의 경우에는 노년층에서도 피부가 “세미”한 것으로 판별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피부가 “세부”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음인이었으므로, 전 연령대에 걸쳐 단지 “부”한 경우보다 변별력이 크게 증가한 값으로 나타났지만(청소년기:3.3→6.7, 청장년기:2.0→4.1, 중년기:1.9→2.3, 노년기:1.7→3.6),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에는 분석 데이터의 크기가 작았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피부가 “미”하면 소양인으로, 피부가 “부”하면 소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부가 “세”한 경우의 변수를 추가한다면 체질 진단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며, 이러한 확률의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피부가 세미부한 경우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다보니 자유도가 너무 커져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차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0. Refined & Smoothness *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with Age.

Refined & Touch Feeling		TE				SE				SY				TY			Total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20	21-40	41-60	61-
none & Slip-pery	Count	6	27	31	15	1	6	3	3	16	47	54	34				1	23	80	88	53
	row%	26.1	33.8	35.2	28.3	4.3	7.5	3.4	5.7	69.6	58.8	61.4	64.2				1.9	100.0	100.0	100.0	100.0
	RR	5.7	17.0	17.5	13.8	4.3	10.0	2.7	6.8	32.7	54.7	52.9	69.4				50.0	13.0	26.2	22.4	26.0
	RDA	-0.6	-0.4	-0.2	-0.5	-0.7	-0.6	-0.9	-0.7	1.5	1.1	1.4	1.7				0.9				
none & Fee-ble	Count	1	10	7	13	5	16	52	20	3	1	4	1				9	27	63	34	
	row%	11.1	37.0	11.1	38.2	55.6	59.3	82.5	58.8	33.3	3.7	6.3	2.9				100.0	100.0	100.0	100.0	
	RR	1.0	6.3	4.0	11.9	21.7	26.7	46.0	45.5	6.1	1.2	3.9	2.0				5.1	8.9	16.0	16.7	
	RDA	-0.8	-0.3	-0.8	-0.3	3.3	2.0	1.9	1.7	0.2	-0.9	-0.8	-0.9								
none & not clear	Count		1	1		1	3	5	7		3	3	2				1	7	9	9	
	row%		14.3	11.1		100.0	42.9	55.6	77.8		42.9	33.3	22.2				100.0	100.0	100.0	100.0	
	RR		0.6	0.6		4.3	5.0	4.4	15.9		3.5	2.9	4.1				0.6	2.3	2.3	4.4	
	RDA		-0.7	-0.8		6.7	1.2	0.9	2.6		0.5	0.3	-0.1								
Refi-ned & none	Count	1	14	7	6	2	6	5	1	1	7	7	3			1	4	27	20	10	
	row%	25.0	51.9	35.0	60.0	50.0	22.2	25.0	10.0	25.0	25.9	35.0	30.0			5.0	100.0	100.0	100.0	100.0	
	RR	1.0	8.8	4.0	5.5	8.7	10.0	4.4	2.3	2.0	8.1	6.9	6.1			100.0	2.3	8.9	5.1	4.9	
	RDA	-0.6	0.0	-0.2	0.1	2.8	0.1	-0.1	-0.5	-0.1	-0.1	0.3	0.2			18.7					
Refi-ned & Slippery	Count	1	8	9	1		1	1		2	23	24	4				3	32	34	5	
	row%	33.3	25.0	26.5	20.0		3.1	2.9		66.7	71.9	70.6	80.0				100.0	100.0	100.0	100.0	
	RR	1.0	5.0	5.1	0.9		1.7	0.9		4.1	26.7	23.5	8.2				1.7	10.5	8.7	2.5	
	RDA	-0.4	-0.5	-0.4	-0.6		-0.8	-0.9		1.4	1.5	1.7	2.3								
Refi-ned & Fee-ble	Count			2		1	16	29	5								1	16	31	5	
	row%			6.5		100.0	100.0	93.5	100.0								100.0	100.0	100.0	100.0	
	RR			1.1		4.3	26.7	25.7	11.4								0.6	5.2	7.9	2.5	
	RDA			-0.9		6.7	4.1	2.3	3.6												
Refi-ned & not clear none	Count			1			1			1	1						3		1		
	row%			33.3			33.3			33.3	100.0						100.0		100.0		
	RR			0.6			0.9			1.0	2.0						0.8		0.5		
	RDA			-0.3			0.2			0.3	3.2										
Total	Count	105	159	177	109	23	60	113	44	49	86	102	49			1	2	177	305	393	204
	row%	59.3	52.1	45.0	53.4	13.0	19.7	28.8	21.6	27.7	28.2	26.0	24.0			0.3	1.0	100.0	100.0	100.0	100.0
	R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 론

익산 원광 한의원에 의해 체질정보은행에 등록된 체질 표본 중 피부진단 데이터를 검색하여 그 체질 분포를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피부가 “조”한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세”한 경우에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여, 소음인 또는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세밀한 여성에게 있어서 피부가 “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태음인으로 진단할 확률이 같은 경우의 남성에게 비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피부가 “세”한 경우 여성에게 있어서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남성에 있어서는 소음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피부가 “조”하면 태음인으로, 피부가 “세”하면 소음인 또는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중년층에서 피부가 “조”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과, 피부가 “세”한 사람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는 소음인의 비율이 보다 높고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점차로 소양인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부가 “미”한 경우에는 소양인으로, “부”한 경우에는 소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진단기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미부도의 측정은 다른 체질에 비해 더욱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 혹은 “부”한 피부특성은 여성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성에서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에 소양인 또는 소음인일 확률이 여성에서의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더 높다. 전반적으로 피부가 “미”하면 소양인으로, 피부가 “부”하면 소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피부가 “부”하게 나타날 경우 소음인 체질일 확률이 높고, 고령층에서 피부가 “미”하게 나타날 경우 소양인 체질일 확률이 높다.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경우를 구분할 때, 여기에 피부가 “조”하거나 “세”한 정도를 함께 구분 기준에 포함하게 되면 “세”와 “미”, “부”를 통하여 소음인과 소양인을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남녀 모두 피부가 “미”한 경우에는 소양인으로, “부”한 경우에는 소음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여

기에 피부가 “세”한 경우의 변수를 추가한다면 체질 진단의 확률이 더 높아지며, 이러한 확률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세미”하거나 “세부”한 사람의 데이터를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피부가 “미”하면 소양인으로, 피부가 “부”하면 소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부가 “세”한 경우의 변수를 추가한다면 체질 진단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며, 이러한 확률의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차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의 두께와 경도 특성에 대한 임상연구. 2004.
2.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보원계, 함흥, 1900.
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
4. 김종열, 김경요, 송정모 :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181-213, 1998.
5. 이수현, 한성수, 최선미, 주종진, 김종열 : 사상체질별 손등피부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6. 김종열, 김홍기 :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5(2): 64-74, 2003.
7. 김대운, 이재원, 김달래 : 사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계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159-168, 1999.
8. 김종열, 김홍기 : 익산원광한의원 내원환자의 체질분포에 관한 통계적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24(3), 118-129, 2003.
9. 김종열, 김홍기 :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5(2), 64-74, 2003.
10. 이도경. 사상요람, 원불교출판사, 익산, 1995.
11. 박인상. 동의사상요결, 소나무, 서울, 1992.
12. 천성수, 박종순, 사회과학 조사분석론, 서울: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13. 허명희. 통계적 개념·방법·응용, 자유아카데미, 서울, 1998.
14. 박정민, 나상균. SPSS 11.0을 이용한 통계 분석, 법문사, 서울, 2003.